傘下支部動靜

〈1면에서 계속〉

關係當局으로부터 매우 적절한 해석을 받았고 또이를 各級分事務所에 기示達한바 있음으로 앞으로의 농산물(생약재) 取扱上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生賣됩니다. 첨가로 計劃하고 있는 標準化製品規定(안)을 인정받도록 多角的교섭을 추진 會員권익보호에 금상첨화가 될수 있도록 힘쓰나갈 예정입니다.

③세번째는…全體的 配分에서 너무나 미미했던 生産資金(지역特作目개발사업 支援자금)과 收買資金의대폭 增額반영입니다.…이두 자金中 生産자금은 生産會員과 직접연관이 되며 地方郡聽으로 配分되므로 各級分所長은 每年 절촉과 유대를 強化하여 希望會員또는 初心者를 主導 生産增加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收買자금은, 分所長및 共販場경영자에 직접 해당하는 農安資金임으로 協會中央本部에 每年 上半期中에 請을 해야하며 이는 短期回轉(1年)과 2倍가까운 담보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것을 特히 유념하시기바랍니다.

④네번째는…會員資質向上과 모든 任員및 幹部要員들에 대한 수련및 단합대회를 갖일 計劃입니다.…이는 今年夏期中에 實施할 服案이였으나, 여러가지 준비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새해로 順延조치한바 있음으로 이點이 해하옵고, 내년上半期中 下達될 실시계획에 同參과 協調있으시기를 당부합니다.

⑤다섯번째는 本會 中央共販場운영 활성화에 대하여…많은 會員들의 期待에도 불구하고 中央共販場에 대하여는 보다 낳은 운영실적을 거두지 못하였읍니다. 이는 전임會長단과의선약도 있고 現경영자의 새로운 준비과정과 여러가지 애로點등으로 早期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事由합니다만 새해초에는 원만한 인수과정이 해결될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會員任들과 전임者와의 發展的 意見을 취합 수렴하여 조금이라도 所得이 더 돌아갈수 있도록 系統出荷와 조기판촉에 最善을 다하겠아오니 여러 會員들께서는 變함없는 계통출하증대에 힘써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⑥其他 來年度 細部事業方針은 1/4分期中 本會事業計劃에 제시할 계획으로 있아오니, 그때가서 여러 會員들과 함께 檢討하여 좋은 意見을 많이 수렴토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우선 送舊迎新하는 뜻에서 人事를 겸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렸아오니 倍前의 질타와 聲援을 주시실것을 바라면서 새해에는 여러 會員께서 부디 所望하시는 事業을 꼭 成就하시옵고 健康과 家內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祝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장 송 경 태

▲中央本部

①20개品目 事業계획에 對하여…本계획은 年次的으로 評價조정할 本會長期사업계획이며 미미한 금을 擴充함과 아울러 國內生産수급에 可用한 主要生藥材는 如何한 경우도수입억제 되어야 한다는 기본目標아래 試圖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점이될 來年은 最初단계인 만큼 地域別 主管者는 극소指定하였읍니다.

이過程에서 부득이한 긴급事情으로 體系的인 示達과 協調에 결여된 點이있었으나 축차적으로 본사업이 擴大 또는 축소 調整되면서 本然의 體系化로정립될 것이오니 이점 各級分事務所長께서는 諒解하시기 바랍니다.

②入山採取會員制度 活用에 對하여…最近 自然生生藥材의 品貴현상과 主要藥出荷감소로 아울러수입자들의 수입자율화 움직임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농민소득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본회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 제도를 성립시킨 것이였으나 날이 갈수록이 제도의 活用이 퇴색되어존폐기로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결코 본회취지에 利로운 기존제도를 쉽게 폐기할수는 없기 때문에 各分所長께서는 더욱 弘報에 힘써 채취會員 모집과 實質的 活用에 來年初부터 분발하여 주실것을 當付드립니다.

③滯納會費 納付촉구에 대하여…會費는 모든 會員에게는 기본의무事項에 속합니다. 今年度 決算을 위하여 11月末 現在로 分析한바 체납會費額은 7百余萬원에 達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協會의 運營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어려운 사료되오나 今年을 넘기기 前에 完結될수 있도록 支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지난 12월7일 피고육자 80余名이 農協전문大學 來訪 全般的 生藥本會를 現況을부 生産및 유통관계 견동市場 一帶를 리뷰받고 見學한바 있다.

▲忠南支部

지난 11月10日 支部녹생회 주관(회장 이영래)으로 기간중 생약정보 교환과 친목및 유대強化를 위하여 경남부곡에서 녹생회 개최.

▲慶北支部

지난 11月3日 支部에서는(지부장·안승관) 경산군소장 배성환氏 主管으로기간중의 지역내 生藥정보교환및 친목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산읍에서 定例녹생회 개최.

▲慶南支部

지난 12月3日 支部長主管으로 고성읍에서 定例녹생회를 개최하고, 支部自體내의 不滿요소 해소와 中央本部에 對한 支援강화방안을 모색한바 있다.

▲釜山支部

지난 12月10日 支部長朴吉夫氏 主管으로 今年度送年녹생회를 개최하고 기간중의 地域內정보교환과 自體親睦및 유대를 일층 強化한바 있다.

傘下支部動靜

〈독자투고 1〉

마음의 病은 마음에서온다

안양시 소장 이봉선 제공

마음이 편안하지않으면병이 된다고한다. 현대인치고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같다. 그래서 요새 마음에 병이 늘고 있다고한다. 한대 병중에서도 마음의 병은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서울大 모교수는 주장한 일이있다 마음의 병은 성격, 환경, 자극처리 방법등 세가지가 얽혀 적응에 실패했을때일어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몸도 평화로울수 없다. 즉,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반영하는 몸은 여러가지 생리적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울때는 소화도 잘되고 혈액순환도 순조롭지만 마음이 우울하면 가슴이뛰고 머리도 아플것이다. 이는 감정의 변화가 신경을 자극하여 그 신경이 닿아있는몸의 여러 기관에 영향을주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집안에서 불쾌한일을 맛보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화나는 일을 격지않는 사람이 과연 그몇이나 되겠는가? 속으로는 갈등이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 억누르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억압된 감정이 혈압을 올려 고혈압이 안된다고 누가 단정할것인가. 월급장이의경우 상인이나 동료나 부하등 직장생활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곧 마음의 병이 될수있으며 마음의 병은 역시 마음에서 오는만큼 마음먹기 따라서는 그 치료와 예방이 어려운 것은 아닐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선 성격이 원만해져야하고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풀어주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 스트레스를푸는 방법으로는 운동과 오락 건전한 취미생활 친구와의 대화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스트레스와정면으로 대결하여 이기려하지말고 순리에 따라 전전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가령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른사람에게 옮김으로써 풀어보려는 생각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다.

불안과 고민 갈등의 원인을 주위에서 찾지말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찾는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순서라고 한다. 그러나혼자서 문제 해결을 할수없을 때는 역시 가까운 친구나 선배 전문가를 찾아 고민을 서슴없이 털어놓는 용기가 있으면 거기에서최선의 처방이 나올것이며그것이 곧 묘약이 될수도있을 것이다.

內년農産物개방확대

소비자물가상승5%이내 억제

정부는 금년말안에 농산물 수입개방예시계획을 발표한후 내년부터 농업부문의 開放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경기도 남양주군덕소동 20개지구 7백20만㎡를 宅地로 새로개발하고, 원貨절상 때문에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얼롱전환을 원활히 할수있도록 3천8백억원의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趙淳부총리는 19일 盧泰愚대통령과 각계인사들이참석한 가운데 열린 89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趙부총리는『한국경제는 안으로는 정치·사회의 각분야에서 불균형 해소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전환기에처해있다』고 지적하고『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경제의 능력범위내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을 고치는데 최대한 노력하되, 전체경제를 보는시각에서 부문간 정책조화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선에서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通貨증가속도를 금년보다 낮추고, 公共요금인상요인을 경영합리화로 흡수토록 하겠다』고 말하고『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내년상반기중 宅地상한제와 開發이익환수제를 포함한 토지公개념도입을 立法化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趙부총리는 이어『새해에는 특히 道路사업비를 올해보다 3배가까운 수준인 8천6백26억원으로 책정, 대대적인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임대주택 9만채를 포함해 모두 15만채의 국민주택을 건설할계획』이라고 밝히고『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특별外貨 대출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88년11월3일자 농민신문〉

「수입금지」지정

수출용한약재62품목

보사부는 10월29일 치자·강활등 62개품목을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했다.

62개품목은 다음과 같다.

치자·강활(羌活)·고본·고삼·괄루인·구기자·구기엽·길경·낭탕근·능실·당귀·당약·대황·도엽·독활·만형자·만삼·목단피·목과·목통·반하·방풍·백작약·백·백출·백하수오·차전초·사삼·산약·세신·소자·시영·시호·연교·영실·오가피·옥죽·용담·우슬·위령선·유행엽·음양곽·인진호·애엽·자소엽·지황·지·백출·백하수오·차전초·사·패모·황금·황국·황백·황정·황기·향부자·현호색·복분자·산수유·삼·차전자·창출·천마·택·모·차전자·창출·천마·택·사·패모·황금·황국·황백·황정·황기·향부자·현호색·복분자·산수유·삼

약초종묘 분양

본 혜일농산에서는 약초종묘를 생산 분양하며 재배지도 및 생산된 생약제의 전량을 구매당시의 시세로 전량 구매하고 있읍니다.

▨분양종류
당귀묘, 감활묘, 두충묘, 하수오, 지황 및 각종 약초의 종자분양.

▨구입방법
직접내사 하시거나 전화상담후에 재배포장에 알맞은 묘를 분양하여 드립니다.

▨상담시간
월~토요일까지, 오전8:30~오후6시까지(일요일 제외)

혜일농산

우편번호 476-800
경기도 양평읍 양근4리 397-8
☎(0338)2-2080
대표 송 만 용
※농협온라인 2310131-52-022502
※국민은행온라인 220-24-0041-582

대추는 약용 과실이다

●대추에는 **에이즈(A.I.D.S)**균의 발육억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은 물론 중공에서는 **항암제** 및 치료제로서 필수적인 약제로 사용하고 있으며인체의 대사작용을 촉진하는 **비타민C**가 채소와 과일중에서 제일많고 모세관 혈관에 작용하여 쇼크 죽음을 방지하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비타민P** 및 비타민**A.B.K** 사포닌 등 67가지의 유익한 성분이 함유된 약용과실로서 그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앙등으로 수입은 물론 밀수가 성행되고 있는 **약용과실**이다.

●근래에 선발된 홍안,무등,복조,품종은 과실의 크기가 20g이나 되는 대과이고 사과당도 15°에 비해 배가넘는 30°~36°로서생식용으로 아주 좋다.

●대추나무는 재배가 쉽고, 수확 저장이 용이하고 약용식품으로서 **대추차, 넥타, 드링크, 대추술, 술안주, 쨈** 등 용도가 많아 판로와 수익성이 보장되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다.

●**유정종묘**는 **대추묘목 전문생산**업체로서 **대추식품개발** 및 대추에 대한 모든것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본 종묘에서 직접생산, 염가 분양하며 재배지도 및 생산물은 판매알선함.

●호도, 사과, 밤, 개량머루, 포도, 복숭, 매실 묘목도 분양함.

구입방법 : 직접오시거나 송금하시면 완벽하게 포장하여 정기화물로 탁송하여 드립니다. (도착지 명기)

유 정 종 묘 (구 유정농원)

과수종묘허가 경남 2—11 산림종묘등록 거창 1
우편번호 670—8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7—7
☎(0598) 2—4674, 42—4674
대표 황 조 연
농협온라인 891—02—52370 우체국온라인 610329—0007102